

하나 글로벌 리서치

2022년 5월 13일 | 미국

디즈니(DIS.US)



디즈니+ 유료가입자 컨센서스 상회

디즈니+ 성장기 돌입

넷플릭스의 유료가입자 감소로 OTT 산업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디즈니+의 성과를 감안할 때 경쟁 심화로 봐야할 것이며, 2024년 2.3~2.6억명의 가입자를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판단된다. 콘텐츠 제작 확대에 따른 올해 예상 콘텐츠 지출은 \$320억이다(3분기 +\$9억 YoY 예상).

2Q22 Review: OP 37억달러(+50% YoY)

2분기 매출액/영업이익은 각각 \$192억/\$37억(+23%/+50% YoY)으로 컨센서스 매출액(\$201억), EPS(\$1.17)를 하회했으나, 디즈니+ 가입자 순증이 약 790만명으로 시장 기대치(450만명)를 상회했다. 부문별 영업손익은 리니어/DTC/콘텐츠세일즈/파크가 각각 \$28억/\$-9억/\$0.2억/\$18억이다. DTC 및 콘텐츠세일즈 부문이 다소 부진했는데, 제작비 등 비용 증가와 콘텐츠 라이선스 계약 조기 종료 등의 영향이 반영되었다. 자체 OTT 강화를 위한 전략적 콘텐츠 유통 감소로 3분기 콘텐츠세일즈 부문은 전년 대비 \$1.5억~\$2억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크 부문은 미국 지역의 완전한 회복과 2019년 대비 인당 지출이 40% 증가한 점이 긍정적이었으나, 홍콩과 상하이 테마파크 폐쇄로 상쇄되었다.

디즈니+의 투자확대에 따른 한국의 수혜

현재 개발 및 제작 단계에 있는 로컬 오리지널만 APAC 지역 140개 포함 500개이며, 매년 300개 이상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디즈니+는 최근 한국에 대한 콘텐츠 투자를 기존 7편에서 20편으로 상향했으며 스튜디오드래곤은 디즈니+ 향 첫 동시 방영작을 공개했다. OTT 경쟁이 심화되면서 다양한 플랫폼으로 대규모 신작/구작 판매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향후 국내 드라마 제작사의 사상 최대 이익이 전망된다. 최근 비용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만큼 글로벌 작품 대비 제작비가 싸면서 다수의 흥행 레퍼런스를 보유한 한국 작품에 대한 수요는 계속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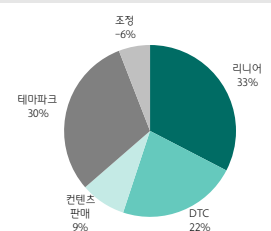
투자선호도 ★★★★★

성장성 ★★★ 모멘텀 ★★★ 밸류에이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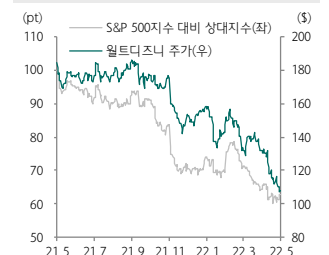
Key Data

국가	UNITED STATES
상장거래소	New York
산업 분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주요 영업	엔터테인먼트
홈페이지	thewaltdisneycompany.com
시가총액(십억USD)	191.6
시가총액(조원)	246.0
52주최고/최저()	187.58/104.79
주요주주 지분율(%)	
VANGUARD GROUP	7.57
블랙록	6.41
블룸버그 목표가(USD)	177.57
최근 증가(USD)	105.21
주가상승률	1M 6M 12M
절대	(17.6) (33.6) (40.7)
상대	(8.3) (19.6) (37.1)

매출 비중



Stock Price



주: 1. 2022.5.12 기준 2. 투자선호도는 별 개수에 따라서 1개(약), 3개(중), 5개(강)로 구분. 성장성, 모멘텀, 밸류에이션 별 개수는 1개(부족), 2개(보통), 3개(충분) 의미.

Financial Data

백만 USD	2020	2021	2022F	2023F
매출	65,388	67,418	84,926	94,585
영업이익	3,794	3,005	12,939	15,136
순이익	(2,864)	1,995	7,668	9,938
EPS(USD)	2.0	2.3	4.4	5.6
EPS(YOY, %)	(65.0)	13.4	93.6	25.7
ROE(%)	(3.3)	2.3	8.1	9.9
PER(배)	178.5	135.4	23.7	18.9
PBR(배)	2.6	3.5	2.0	1.8
배당률(%)	0.7	0.0	0.7	1.3

자료: Bloomberg 시장 컨센서스, 하나금융투자



Analyst 이기훈

02-3771-7722

sacredkh@hanafn.com

RA 황지원

02-3771-7784

jiwon.hwang@hana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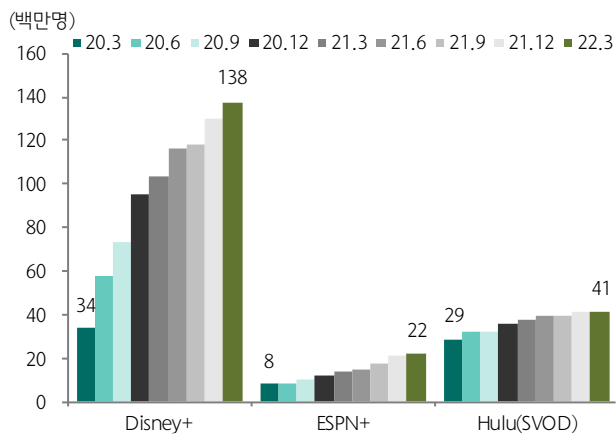
표 1. 신규 사업 기준 실적 변화

(단위: 십억달러)

	2Q21	2Q22	YoY
매출	15.6	19.2	23%
Linear Networks	6.7	7.1	5%
Direct-to-Consumer	4.0	4.9	23%
Contents Sales/Licensing&Other	1.9	1.9	-3%
콘텐츠 내부 조정	(0.2)	(1.3)	
파크	3.2	6.7	110%
영업이익	2.5	3.7	50%
Linear Networks	2.8	2.8	-1%
Direct-to-Consumer	(0.3)	(0.9)	적지
Contents Sales/Licensing&Other	0.3	0.0	-95%
파크	(0.4)	1.8	흑전
매출비중			%p 변화
Linear Networks	43%	37%	-6.2%
Direct-to-Consumer	26%	25%	-0.1%
Contents Sales/Licensing&Other	12%	10%	-2.6%
파크	20%	35%	14.2%
OPM	16%	19%	3.4%
Linear Networks	42%	40%	-2.7%
Direct-to-Consumer	-7%	-18%	-10.8%
Contents Sales/Licensing&Other	16%	1%	-15.4%
파크	-13%	26%	3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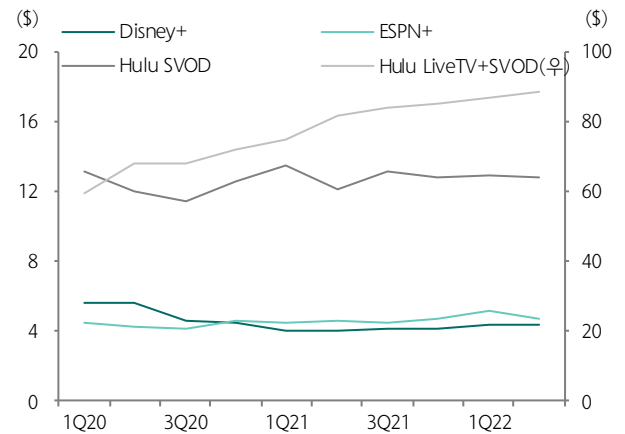
자료: TWDC, 하나금융투자

그림 1. 디즈니 OTT별 가입자 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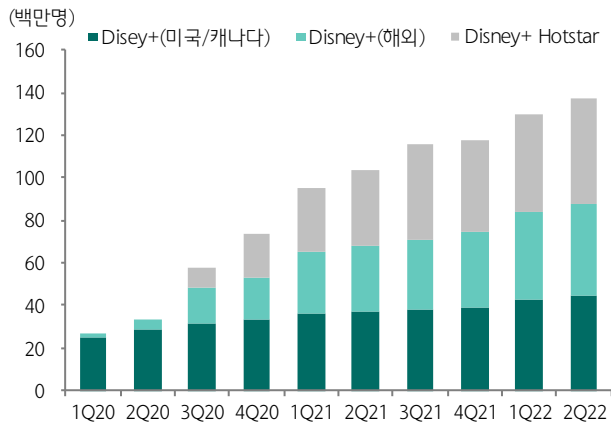
자료: TWDC 하나금융투자

그림 2. 디즈니 주요 OTT별 ASP 추이



자료: TWDC, 하나금융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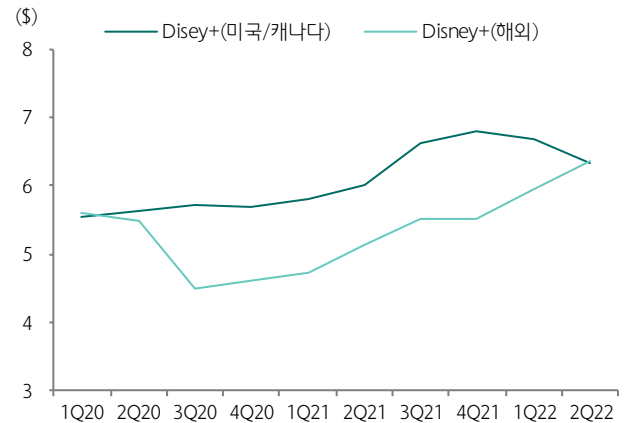
그림 3. 디즈니+ 지역별 유료가입자 증가 추이



자료: TWDC, 하나금융투자

주: Disney+ Hotstar 서비스 지역은 인도 및 인도네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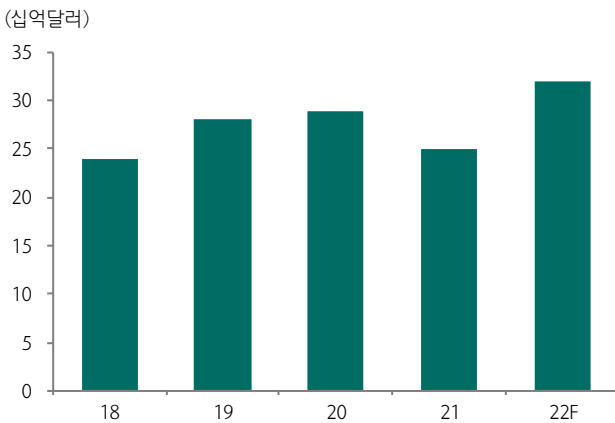
그림 4. 디즈니+의 지역별 ASP 추이



자료: TWDC, 하나금융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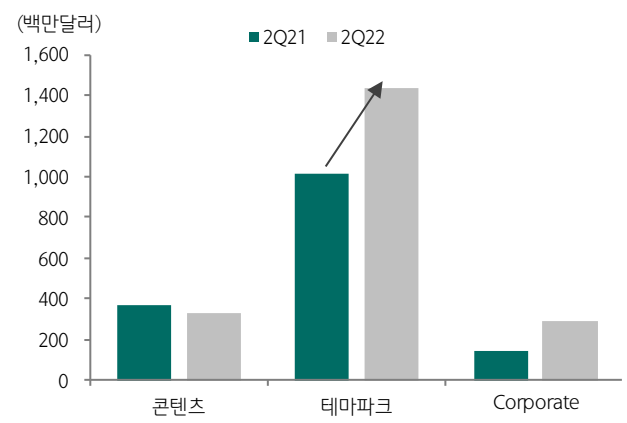
주: Disney+(해외)에 Disney+ Hotstar은 미포함

그림 5. 디즈니 콘텐츠 투자 금액 추이 - 2022년 가이던스 320억달러



자료: TWDC, 하나금융투자

그림 6. 디즈니 부문별 Capex 변화(누적)



자료: TWDC, 하나금융투자

표 3. 디즈니플러스 한국 콘텐츠 라인업 - 2022년 20개 이상(오리지널 12개+)의 한국 콘텐츠 순차 공개 예정

장르	작품명	출연진	제작사	회차	비고
드라마	설강화('21년 12월)	정해인, 지수	드라마하우스, SLL	16	tvN 동시 방영
	너와 나의 경찰수업(1월)	강다니엘, 채수빈	스튜디오앤뉴	16	-
	그리드(2월)	서강준, 김아중	에이스팩토리, 아크미디어	10	<비밀의 숲> 이수연 작가 집필
	사운드트랙#1(3월)	박형식, 한소희	레드나인픽처스, 제나두엔터	4	<빈센조> 김희원 감독
	키스 식스 센스(5월)	윤계상, 서지혜	아크미디어	12	웹소설 원작
	무빙	조인성, 한효주	스튜디오앤뉴	20	웹툰 원작, <킹덤2> 박인제 감독
	카지노	최민식	BA엔터, 씨제스엔터, 아크미디어	16	<범죄도시> 강윤성 감독
	빅마우스	이종석, 임윤아	에이스토리	16	MBC 동시 방영. 오리지널X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려원, 이규형	아크미디어	-	정식 발표X
	커넥트	정해인, 고경표	스튜디오드래곤	6	정식 발표X
예능	최악의 악	지창욱, 위하준	바람픽처스, 사나이픽처스	-	정식 발표X
	런닝맨: 뛰는 놈 위에 노는 놈	하하, 지석진, 김종국	SBS	10	<런닝맨> 스펀 오프
다큐멘터리	더 존: 버텨야 산다	유재석, 이광수, 유리	-	-	조효진 PD 연출
	블랙핑크: 더 무비	블랙핑크	YG Ent.	-	블랙핑크 데뷔 5주년 기념

자료: Disney+, 언론 종합, 하나금융투자

주: 회색 표시는 국내 서비스 런칭 전 공개된 라인업

표 3. 현재까지 디즈니+ 주요 출시 국가별 일정 및 파트너

출시일	국가	출시 파트너
2019-11-12	네덜란드, 캐나다 미국	- Verizon
2019-11-19	호주, 뉴질랜드, 푸에르토리코	-
2020-03-24	오스트리아, 스위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 Telekom Sky TIMvision Movistar+ Sky, O2
2020-04-03	인도	Hotstar
2020-04-07	프랑스	Canal+
2020-04-30	모나코, 뉴칼레도니아	-
2020-06-11	일본	NTT Docomo
2020-09-05	인도네시아	Hotstar, Telkomsel
2020-09-15	북유럽, 벨기에,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
2020-11-17	남미 및 캐리브 제도(쿠바 제외)	Izzi Telecom(맥), Globoplay(브), Visa(기타)
2021-02-23	싱가포르	StarHub
2021-06-01	말레이시아	Astro
2021-06-30	태국	AIS 5G
2021-11-12	한국 대만	LG Uplus, KT Mobile Taiwan Mobile
2021-11-16	홍콩	Hong Kong Broadband Network
2022년 5~6월	아프리카, 중동, 유럽 42개 국가	-
2022년 말	필리핀 베트남	Hotstar, Globe Telecom Hotstar

자료: 언론 종합, 하나금융투자

주: 프랑스 해외 영토 및 소형 국가의 경우 다수 생략

표 4. MCU의 디즈니+ 독점 드라마 및 영화 라인업

	방영 시점	시리즈명	구분
	2021년 1월 2021년 3월 2021년 6월 2021년 8월 2021년 11월	완다비전 팔콘과 윈터 솔저 로키 왓 이프...? 호크아이	9부 6부 6부 9부 애니 6부
디즈니+ 독점 드라마	2022년	문 나이트(3월) 미즈 마블 쉬얼크 시크릿 인베이션	6부 6부 10부 6부
	TBA	아이언하트 아머 워즈 아이엠그루트	6부 애니메이션
영화 Phase 4	개봉 예정일	영화명	시리즈 구분
	2021년 5월 2021년 7월 2021년 11월 2021년 12월	블랙 위도우 샹치와 텐 링즈의 전설 이터널스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블랙 위도우 과거 아시아인 배역 샹치 등장 이터널 종족 이야기 스파이더맨3
	2022년	닥터 스트레인지 인 더 멀티버스 오브 매드니스(5월) 토르: 러브 앤 썬더(7월)	닥터 스트레인지2 토르4
영화 Phase 5	개봉 예정일	영화명	시리즈 구분
	2022년	블랙 팬서: 와칸다 포에버(7월)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 홀리데이 스페셜(12월)	블랙 팬서2
	2023년	더 마블스 앤트맨과 와스프: 퀀터매니아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VOL.3	캡틴 마블2 앤트맨과 와스프2 가오갤3
	TBA	판타스틱4 데드풀3 엑스맨	

자료: 위키백과, 하나금융투자

표 5. 디즈니 분기별 영화 개봉(OTT 배급의 경우 밀줄)

회계분기	상영 시점	영화명	비고	연기 및 OTT 배급
1Q20	19.10	Maleficent: Mistress of Evil		
	19.11	Frozen 2		
	19.12	Star Wars: Episode IX	스타워즈	
2Q20	20.01	Underwater	20CF	
	20.02	Call of the Wild	20CF(라이브액션)	
	20.03	Onward	픽사	
3Q20	<u>20.06</u>	<u>Artemis Fowl</u>	<u>판타지 영화</u>	<u>20.05에서 연기, Disney+ 독점공개</u>
4Q20	<u>20.07</u>	<u>Hamilton</u>	<u>뮤지컬 영화</u>	<u>20.08 영화관 개봉 대신 Disney+ 독점공개</u>
	20.08	The New Mutants	마블(X-men)	18.04부터 연기
	20.08	The Personal History of David Copperfield	Fox Searchlight	20.05에서 연기
	<u>20.08</u>	<u>The One and Only Ivan</u>		<u>20.08에서 연기, Disney+ 독점공개</u>
	<u>20.09</u>	<u>Mulan</u>	<u>라이브액션</u>	<u>20.03에서 연기, Disney+ PVOD</u>
1Q21	20.10	The Empty Man	20CF	20.08에서 연기,
	20.11	Black Beauty		Disney+ 오리지널
	20.12	godmothered		Disney+ 오리지널
	20.12	Safety		Disney+ 오리지널
	<u>20.12</u>	<u>Soul</u>	<u>픽사</u>	<u>20.06에서 연기, Disney+ 독점공개</u>
2Q21	<u>21.03</u>	<u>Raya and the Last Dragon</u>	<u>디즈니 애니</u>	<u>20.11에서 연기, Disney+ PVOD</u>
3Q21	<u>21.05</u>	<u>Cruella</u>	<u>디즈니 실사</u>	<u>Disney+ 독점공개</u>
	<u>21.06</u>	<u>Luca</u>	<u>디즈니 애니</u>	<u>Disney+ 독점공개</u>
4Q21	<u>21.07</u>	<u>Black Widow</u>	<u>마블</u>	<u>20.05에서 연기, Disney+ 독점공개</u>
	<u>21.07</u>	<u>Jungle Cruise</u>	<u>디즈니 실사</u>	<u>20.07에서 연기, Disney+ 독점공개</u>
	21.08	Free Guy	20CF	
	<u>21.09</u>	<u>Shangchi and the Legend of the Ten Rings</u>	<u>마블</u>	<u>21.02에서 연기, 극장 개봉 45일 후 Disney+ 공개</u>
1Q22	21.10	The Last Duel	20CF	
	21.10	Ron's Gone Wrong	20CF	
	21.10	The French Dispatch	Fox Searchlight	
	21.10	Antlers	Fox Searchlight	
	21.11	Eternals	마블	
	<u>21.11</u>	<u>Home Sweet Home Alone</u>	<u>20CF</u>	<u>Disney+ 독점공개</u>
	<u>21.11</u>	<u>Encanto</u>	<u>디즈니 애니</u>	<u>극장 개봉 30일 후 Disney+ 공개</u>
	<u>21.12</u>	<u>Diary of a Wimpy Kid</u>	<u>디즈니 애니</u>	<u>Disney+ 독점공개</u>
	21.12	West Side Story	20CF	
	21.12	Nightmare Alley	Fox Searchlight	
2Q22	21.12	The King's Man 3	마블(20CF)	20.09에서 연기
	<u>22.01</u>	<u>The Ice Age Adventures of Buck Wild</u>	<u>디즈니 애니</u>	<u>Disney+ 독점공개</u>
	22.02	Death on the Nile	20CF	
	<u>22.02</u>	<u>No Exit</u>	<u>20CF</u>	<u>Disney+ 독점공개</u>
	22.03	Fresh	Fox Searchlight	Disney+ 독점공개
	<u>22.03</u>	<u>Turning Red</u>	<u>디즈니 애니</u>	<u>Disney+ 독점공개</u>
	<u>22.03</u>	<u>Cheaper by the Dozen</u>	<u>디즈니, 20CF</u>	<u>Disney+ 독점공개</u>

자료: 위키백과, 하나금융투자

2Q22 실적발표 주요 Q&A 내용

Q1. 파크 부문 1인당 소비 증가율 두 자릿수 기록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최근 인플레이션이 이에 영향을 미칠지?

계속해서 매우 강력한 수요를 확인하고 있고, 특히 해외 방문이 회복되면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강해질 것. 고객 경험 향상을 위해 예약 시스템을 도입해 방문객 수를 통제하고 있는데, Genie+에 가입하고 예약 시스템을 통해 공원에 오고자 하는 방문객 수가 점점 늘고 있고, 이는 요금 관리에도 많은 도움이 됨. 이러한 전략은 티켓 가격 인상에만 의존하지 않고 구조적으로 인당 소비를 의미 있게 늘릴 수 있게 해줌

Q2. 상반기 디즈니+ 가입자 수 증가 기대 이상, 하반기에는 더 좋을 것이라 생각하는지?

상반기보다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 다만 상반기가 기대 이상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예상했던 만큼 델타가 크지 않을 수 있음

Q3. 투자자들 이제 가입자 수보다도 가입자 증가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에 더 관심을 가지는 추세인데, OTT 경쟁 심화에 따른 콘텐츠 비용 상승을 감안했을 때 가이던스를 달성하는 것보다 주주환원에 초점을 두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수익성과 가입자 수는 같이 움직이는 것이라 생각. 좋은 콘텐츠가 가입자 수를 증가시키고, 가입자 규모가 결국 수익성을 견인할 것. 그래서 이 둘이 상충된다고 생각하지 않음. 그리고 로컬 시장에서 많은 양의 콘텐츠를 추가하고 있지만, 이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유명 IP 시리즈물의 회당 제작비 대비 저렴함. 수익성과 가입자 수, 그리고 콘텐츠 제작비 이 셋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앞으로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비용을 통제해 가입자 가이던스와 수익성 가이던스를 모두 달성할 것

Q4. 파크 마진 관련

소비자 수요와 예약률, 방문자 수 등 모든 수치 긍정적.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 항상 비용 상승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왔음. 예컨대 연료 비용 상승과 관련해서 연료 헷징(Fuel hedging)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어 연료 비용에 대한 변동성을 최소화하고 있음

Q5. 320억 달러의 콘텐츠 지출 중 로컬 콘텐츠 비중은?

스포츠 (방영권) 관련된 비용이 약 1/3. 나머지의 상당 부분은 OTT를 통해 공개될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사용될 것. 보유 IP를 이용한 작품뿐만 아니라 비영어 콘텐츠 등에 투자하며 새로운 IP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미국 외 지역에서 로컬 콘텐츠를 500개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140개, EMEA 150개, 인도 100개, 라틴아메리카 200개

Q6. 제시한 가입자 수 가이던스대로면 연간 5천만명의 순증이 필요한데, 새로 출시될 광고 포함 스트리밍 서비스와 일반 프리미엄 서비스 간 가입자 비중은?

비중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고 있지 않음. 다만, 디즈니+ 광고 포함 서비스를 통해 디즈니+를 여러 가격대로 확장해 더 많은 시청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 장기적인 수익성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광고 수익이 ARPU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

Q7. 2019년 이후 중국에서 디즈니 영화가 개봉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중국 상황 매우 유동적. 그러나 중국에서도 디즈니 IP는 오랫동안 성공해왔고 강력한 팬층을 보유하고 있음.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화 개봉할 것. 다만 주목할 점은, 중국에 영화를 개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최근 개봉한 <닥터스트레인지2>는 일주일도 안돼서 중국 시장 없이 박스오피스 5억달러 이상 달성. 따라서 중국 시장에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더라도 상대적으로 낮은 매출 비중 감안했을 때 당사의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Q8. 디즈니+ 가이던스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 같은데, 구독 취소율이나 활성화율은 어떤지?

보유 중인 OTT 플랫폼을 통해 시청시간, 앱 활성화율 등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음. 예를 들어 우리 플랫폼에서 가입자가 처음으로 보는 콘텐츠가 무엇인지 등의 정보를 통해 그들이 왜 가입했는지 파악할 수 있음. 구독 취소율은 굉장히 낮은데 묶음 요금제일 경우 더욱 그런 경향이 있음. 결론적으로 OTT로부터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이용해 모델링을 해봤을 때 디즈니+의 가이던스는 달성 가능한 수준

추정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단위: 백만USD)				
	2019	2020	2021	2022F	2023F
매출	69,607	65,388	67,418	84,926	94,585
매출총이익	27,546	21,508	22,287	29,299	34,240
판매비	15,716	23,449	19,282		
영업이익	11,830	(1,941)	3,005	12,939	15,136
이자 비용	1,246	1,647	1,587		
기타영업손익	(3,339)	(1,845)	(1,143)		
세전이익	13,923	(1,743)	2,561		
법인세	3,026	699	25		
소수주주이익	530	390	512		
특별손실	(687)	32	29		
당기순이익	11,054	(2,864)	1,995	7,668	9,938
성장율(YoY)					
매출	17.1	(6.1)	3.1	26.0	11.4
영업이익	(20.3)	(116.4)	(254.8)	330.6	17.0
순이익	(12.3)	(125.9)	(169.7)	284.4	29.6
수익성(%)					
매출총이익률	39.6	32.9	33.1	34.5	36.2
영업이익률	17.0	(3.0)	4.5	15.2	16.0
순이익률	15.9	(4.4)	3.0	9.0	10.5

자료: Bloomberg, 하나금융투자

대차대조표	(단위: 백만USD)				
	2017	2018	2019	2020	2021
유동자산	15,889	16,825	28,124	35,251	33,657
현금성자산	4,017	4,150	5,418	17,914	15,959
매출채권	8,268	12,882	11,299	11,177	0
비유동자산	79,900	81,773	165,860	166,298	169,952
투자자산	115	131	302	3,903	3,935
유형자산	28,406	29,540	31,603	32,078	36,519
자산총계	95,789	98,598	193,984	201,549	203,609
유동부채	19,595	17,860	31,341	31,077	31,077
비유동부채	30,042	26,783	59,791	77,409	70,308
부채총계	49,637	44,643	91,132	104,037	101,385
자본금	36,248	36,779	53,907	54,497	55,471
이익잉여금	5,067	11,994	34,970	29,086	33,082
자본총계	46,152	53,955	102,852	97,512	102,224

투자지표					
	2019	2020	2021	2022F	2023F
주당지표(USD)					
EPS	5.8	2.0	2.3	4.4	5.6
BPS	49.8	46.9	49.7	52.8	57.1
SPS	42.0	36.2	37.1	5.4	3.4
DPS	1.8	0.9	0.0	0.7	1.4
주가지표(배)					
PER	25.9	33.2	135.4	23.7	18.9
PBR	2.6	2.6	3.5	2.0	1.8
EV/EBITDA	18.0	64.3	41.2	15.4	13.1
PSR	3.1	3.4	4.7	2.3	2.0
배당수익률(%)	1.4	0.7	0.0	0.7	1.3
재무비율(%)					
ROE	16.1	(3.3)	2.3	8.1	9.9
ROA	7.6	(1.4)	1.0	3.2	4.3
ROIC	10.5	(1.2)	1.9	-	-
부채비율	45.8	63.9	57.0	-	-
유동비율	0.9	1.3	1.1	-	-
이자보상배율(배)	8.1	(1.1)	1.7	-	-

자료: Bloomberg, 하나금융투자

현금흐름표	(단위: 백만USD)				
	2017	2018	2019	2020	2021
영업활동 현금흐름	12,343	14,295	6,606	7,618	5,567
감가/무형상각비	2,782	3,011	4,167	5,345	5,111
비현금자본증감	(58)	90	(6,576)	(488)	2,023
투자활동	0	0	0	0	0
유형자산처분	0	0	0	0	0
유형자산취득	(3,623)	(4,465)	(4,876)	(4,022)	(3,578)
투자자산증감	0	0	0	0	0
재무활동	(8,928)	(8,868)	(1,188)	8,518	(4,355)
배당금	(2,445)	(2,515)	(2,895)	(1,587)	0
단기부채증감	0	0	0	0	0
장기부채증감	3,703	(2,583)	3,677	11,233	(3,699)
자본금증감	(9,092)	(3,367)	318	305	435
잉여현금흐름	8,720	9,830	1,730	3,596	1,989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이기훈)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2년 5월 13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이기훈)는 2022년 5월 13일 현재 해당 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